

교단행정세미나 개최에배 설교문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사사기 7장 1절, 2절



송한영 목사
교단총회장

**중요한 것은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쁜신 중에도 원근각처에서 교단을 사랑해서 오는 행정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제목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온갖 괴로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고민은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사람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인간의 수단 방법을 의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소설가 아네스트 헤밍웨이는 인생에는 네 가지 큰 풍량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환경에서 오는 자연적 재해 풍량이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오는 인간갈등의 풍량이다. 셋째는,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의 풍량이다. 넷째는, 자기 마음속

에서 불어오는 마음의 풍량이다 하였습니다. 이런 풍량 속에서 우리를 견제시킬 분과 그 풍량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그 가르침을 수 없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 뿐입니다.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겪는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라는 결정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말씀은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여 전쟁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니 3만 2천명이 왔습니다.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지극하며 교만

하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선별직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 가라 했더니 이만 이천 명이 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시험하게 했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먹는 자가 있었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자는 300 명이었습니다. 이틀만 데리고 싸우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드온도 갈등이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설 것이냐 사람의 지혜 편에 설 것이냐라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 뜻을 따르려면 끈리와 순해를 간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나 세력을 따르려는 유혹으로 인해 갈등하기도 합니다. 답은 확실합니다. 당장 손

해가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욥기 8장1절 이하에는 밧사라는 욥의 친구의 권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하였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환경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 18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14장 11절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였습니다.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 하시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버려야 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정직과 청결을 지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창대케 되었습니다. 안토니 후크민은 그의 책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인간을 정의하기를 피조 된 인격체로서의 인간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인격체로 정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삼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향기가 흘러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피조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피조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순간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 부요한 것, 권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쁘게도, 무사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피조물의 삶은 그 자체가 영광이요 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누구를 의지

하기로 하느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열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와 비교한다면 여호수아 같은 보고는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을 살렸고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았습니다. 이 시대에 주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조연도 중요합니다. 영화는 훌륭한 조연으로 인해 빛나게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잘 돕는 성도님들로 인해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교단도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도 주연과 조연 모두 역할을 잘 할 때 부흥 발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연과 조연은 역할 부담이 다를 뿐 그 역할의 중요성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와 진실을 택하고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교역자들이 모인 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입니다.

목양時評

안기호 목사 // 법무국장

소송결과와 의미 그리고 제언... “밝은 앞날을 만들어가자”



이제 재산, 교권 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변화와 발전을 통해 건강한 교단을 세워나가기 위해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좋겠다.

1. 서론
교단 통합 이후 이탈측과 크고 작은 많은 민형사 소송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를 종류별로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판법인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교단명칭과 관련된 소송이다. 부동산처분금지처분과 이사회결의무효, 주처장결의무효, 출입금지처분 등은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고, 상표권처분금지처분, 상표권사용금지처분, 업무표장사용금지처분 등과 회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들은 교단명칭과 관련된 소송이다.

2. 소유권 관련 소송의 결과
결과를 말하자면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재판부는 법원독립적인 신앙의 규범과 전통을 존중하는 상식과 정의관념에 입각해 소유권을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이탈측은 총회결의도 없이 총회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교단 내부의 규칙과 역사와 전통과 신앙적 가치를 무시한 채 영동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인 기독교 교단을 세속의 주식회사처럼 경시하는 오만한 논리와 치우친 시각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였고, 결국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교단명칭 관련 소송의 결과
하지만 교단명칭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표권사용금지처분과 업무표장사용금지처분에서 이미 승소하였고, 이 탈측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이 있는 특허정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0. 6. 3에 나온 업무표장사용금지처분 소송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표장 자체가 등록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화된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결국 본교단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4. 소송결과에 담긴 의미
가) 교단명칭 관련 소송
이상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한 마디 하고 싶다. 그동안 이탈측은 총회결의도 없이 총회원 몰래 교단명칭과 로고에 대한 특허를 내 놓은 것을 이용하여 본교단 회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처별적인 형사고소 및 예매증출입금지처분 소송을 남발하며 회원들을 괴롭히는 한편, 본교단을 향해서도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라는 교단 명칭을 사용하지 말

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논리적 측면에서 이는 마치 안기호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同名異人) 중에 한 사람이 안기호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동명도 구하지 않고 팔레 그 이름에 특허를 내 놓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다른 수많은 안기호들을 향하여 그 이름에 대한 사용권한은 내게 있으니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그 이름을 쓰지 말라고 협박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가망치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 나아가 표장등록 자체가 무효화된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은 이탈측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위가 매우 비윤리적이고 반신양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나. 소유권 관련 소송
한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합절차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법원독립적인 신앙의 규범과 전통을 존중하는 상식과 정의관념에 입각해 소유권을 판단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교단 내부의 규칙과 역사와 전통과 신앙적 가치를 무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인 기독교 교단을 세속의 주식회사 같은 단체의 합병논리에 의해 판단하였다는 것은 기독교 교유의 교리와 신학 등에 입각한 정체성과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오만한 내지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공노할 일이 아

닐 수 없다.

이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절대자”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에게는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고 이해하기가 쉬우니 앞으로는 ‘하느님’이라고 불러라”라고 판결한 것과 똑 같다. 하지만 일부 종교교원주자자들은 그런 논리를 받아들일지 몰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하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5. 무엇이 정통성인가
지난 6월 10일 어떤 목사가 뉴스피션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실은 글을 통해 ‘정통성’ 소송에서 패소”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를 보면 아직도 물질만능시대의 신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하였다면 그것은 정통성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도둑맞은 것일 뿐이다. 재산을 도둑맞았으니 솔직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어찌 안 그러겠는가. 하지만 결코 정통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재산을 도둑맞은 것에 불과하다. 어떻게 재산을 정통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교단에 속해 있는

가? 통합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선택하였는가? 세 교단이 정당하게 통합 절차를 거쳤기에 통합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합된 교단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통합의 산 증인이다. 바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합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지금 통합된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통성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십자가는 말 그대로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좀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을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다. 그런데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진 것이 정통성 소송에서 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성도(우리 자신)들이다. 마찬가지로 교단은 총회회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회원 교회들의 연합이다. 이것은 기독교교리의 기본에 속하는 아주 초보적인 진리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그동안 신문 기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유권이전 소송은 정통성 다툼이 아니라 재산다툼일 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강조해 왔다.

6. 제언 - 밝은 앞날을 만들어가자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억울함을 당했다면 그것은 재산을 잃은 것일 뿐이다. 조금 잃었다.

하지만 이탈측이 교단명칭을 갖고 우리 교단과 회원들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장난을 하다 철폐를 맞은 것은 명예를 잃은 것이다. 그들은 많이 잃었다.

재산과 교권에 대한 탐욕 때문에 순진한 일부 회원들을 총동원하여 통합에서 이탈한 자들은 어떤가? 또 거짓 소송으로 교단에서 이 탈하여 “우리가 정통”이라며 교단을 세운 자들은 어떤가? 혹은 영적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부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재산, 교권 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변화와 발전을 통해 건강한 교단을 세워나가기 위해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좋겠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아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 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나를 부르며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렇게 하면 들어주리라.”(렘29:11-12).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단을 향한 말씀이 되게 하소서!

2010년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지역별 교사 강습회

프로그램

- 1교시 아동부 찬양 율동 - 이정재 전도사
- 2교시 여름성경학교 사랍up 프로그램 이해정 전도사, 중고등부 부흥전략 안기호 목사
- 3교시 활기찬 교회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한실희 전도사

지역별 시행 일정

- 1차 일시 : 6월 12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장소 : 정읍 순복음 중앙교회(전북 정읍시 시가지동 227)
전화 : 063-538-0675
- 2차 일시 : 6월 26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장소 : 남원 중앙교회(전북 남원시 죽향동 75-1)
전화 : 063-625-0690
- 3차 일시 : 6월 28일(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장소 : 경주 평강교회(경북 경주시 황성동 481-10)
전화 : 054-772-7867